

특허청, 서울삼성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눔 발명교육 운영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 6.(수) 13시 서울삼성학교(청각장애인 특수학교, 서울시 동작구)에서 중·고등학생 53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기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진행수업(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된다.

* 현장 수업에 앞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교실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활동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

교육 대상자인 서울삼성학교 학생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가지식재산포털*’에서 사전 학습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과정을 수강한 바 있다. 온라인 과정에서는 청소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제작된 콘텐츠 중 수어 및 자막 활용이 가능한 ①‘(JOB)아라! 지식재산’, ②‘트리즈**로 멋진 발명품 만들기’가 제공되었다. 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발명에 대한 기본 강의와 직접 발명 키트를 만들어보는 심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대국민 무료 지식재산 이러닝 사이트

** 다수의 발명 특허를 분석해 도출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발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발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미래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인선 (042-601-4304)
		담당자	주무관	조하영 (042-601-4312)